

이달의 어항 ③⑦ - 경남 사천시 신수항

해상 사이버 관광어항의 꿈, 신수항



신수도(新樹島), 남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 경내에 있으면서도 주변 창선도나 사랑도 등 이름 난 다도해 섬들에 가려져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못한 처녀섬.

삼천포항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라 인근 지역에서는, 또 섬 내 주민들도 섬이라기보다 육지와 조금 격리된 곳 정도로 여겨왔던 곳이다. 섬의 크기는 30여평 남짓, 골프장 18개 홀 하나 앉히기도 빠듯해 보이는 섬에 비교적 큰 크기의 신수항이 섬의 서쪽에 자리 잡았다.

이곳 신수도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저 철 맞춰 고기 잡고, 물때 맞춰 바지락 훑으면 그만이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란 요상한 물건이 들어와 마을에 활기가 넘친다.

이달에 찾아갈 국가어항은 작은 섬 신수도를 최첨단 정보통신의 섬으로 이끌 신수항이다.

경상남도 사천시 신수동에 위치한 신수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고, 1981년 기본시설계획을 수립한 후 1998년 기본시설을 완공했다.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북방파제 100m, 남방파제 300m, 물양장 525m, 차도선부두 15m, 호안 253m가 2004년 까지 모두

완공되었고, 항내 182㎡를 준설했다.

수산현황은 전업 80가구 320명, 겸업 55가구 234명, 지방어선이 351척으로 외줄낙시업과 양식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주어종으로는 도다리, 전어, 멸치 등이 있고 연간생산량은 250MT이다.

섬의 이름을 두고

는 재미있는 설이 많은데, 섬의 들고 나온 곳이 모두 신 두개라는 뜻에서 신수도, 섬이 높이가 낮아 물에 잠길듯해서 침수도, 사천의 주산인 와룡산이 용의 머리가 바다에 솟아 있는 형상이라서 신의 머리라는 뜻의 신두도가 신수도로 변했다는 설 등이 분분하다. 그만큼 전설이 깊고 많다는 것



은 섬의 역사가 오래 되었다는 이야기일 터. 다른 지방에서 명주실, 말총 등을 낚시줄로 사용할 때 신수도는 까만 고래실줄의 외줄낙시법을 사용하여 남해안에서 가장 먼저 선진어업법이 발달한 곳이기도 하다.

몇 년 전 사천시와 어촌계의 노력으로 신수도에 초고속통신망이 보급되었다. 어촌정보화, 주민정보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신수도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주민들은 섬에 전기가 든 1975년 이후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 충격을 경험했다.

변화가 가장 즐거운 것은 아이들. 웹게임도 가능하고, 인터넷 과외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업시간에 인터넷 이야기만 나오면 주눅 들던 삼천포 통학생들에게는 친구 신세지지 않고도 숙제를 할 수 있어서 더없이 기쁜 소식이다.

“그기 희한한 물거인기라.”

서류 한 통 때문에 물으로 나가면 하루일이었던 어른들도 반색이다. 수산물 시황에 정확한 해상 날씨정보까지 즉각즉각 답을 내주는 희안한 물건 배우기에 한창이다. 유통에 눈을 뜬 어업인들은 멸치나 바지락 같은 수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을 생각 중이다.

초고속통신망의 개통과 함께 지난해부터 신수항에서 하루 5회 왕복운항 하고 있는 차도선 '새신수도호'가 취항하면서부터 관광객 유치도 쉬워져 사천시와 어촌계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촌계는 사천시와 협의 하에 경관을 망치는 송신탑을 철거하고, 인터넷시설과 숙박시설을 마련해서 민박도 효율적으로 경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모세의 기적 현상을 볼 수 있는 추섬 유원지와 섬의 북쪽 죽방렴을 개발, 홍보하여 관광객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사천항에서 배를 타고 신수도로 향하는 길에는 사천과 남해 창선도를 잇는 삼천포~창선 대교를 볼 수 있다. 올해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중 당당히 대상을 차지한 길(다리) 답게 멋진 모습을 뽐내고 있다. 다섯개의 교량이 각기 다른 공법으로 시공되어 다리박물관을 방불케하는 장관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펼쳐진다.

♣ 찾아가는 길

- ◎ 대전~사천간 고속도로→사천IC→삼천포항
- ◎ 도선 : 1일 5회 운행, 요금 2,000원, 승용차 8,000원